



보도시점 2026. 5. 13.(수) 11:00 배포 2026. 5. 13.(수) 09:00

압도적 존재감 K-푸드, 민관이 함께 할랄 시장 수출 장벽도 넘는다

- 정부-기업, K-푸드 할랄 시장 등 해외진출 확대 전략 논의
-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 강화

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5월 13일(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할랄 시장 등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의 후속 조치로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K-푸드의 유망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농식품 수출기업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K-푸드 수출 확대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13.(수) 10:00~11: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
- 참석자 : (정부)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등
(민간관계기관) 한국이슬람교(KMF) 등 할랄 인증기관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농심, 서울우유 등
농식품 수출기업 및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K-푸드 수출액은 작년 104억 달러(전년 대비 4.3% 증가)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올해 1분기 수출액은 2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할랄 시장을 비롯한 권역·시장별 유망 품목 발굴 및 신규시장 진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K-푸드는 K-콘텐츠를 보며 즐기는 경우가 많아 이와 연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할랄 시장의 특성상 원료 및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할랄 인증이나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류 관련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고충을 듣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원스톱 K-푸드 수출지원허브*」를 중심으로 수출 과정의 제약요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K-푸드 수출 전 과정(관세, 통관, 외환, 인증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특히 정부는 「글로벌 차세대 K-푸드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K-할랄식품관,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등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글로벌 소비 트렌드와 기술·산업 변화를 반영한 차세대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제 발굴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동 등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해외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물류창고 이용 등 물류 관련 지원을 강화하면서, 중장기 할랄 소재·보존 기술 연구 개발과 전문인력 교류 강화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경설 혁신성장실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기업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하면서,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은 현장의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염경윤 (044-215-8870)
		담당자	사무관	임근일 (limkeunil@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김태규 (044-201-2179)